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체육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박원석: 723-4250)
 제 목 상암동 월드컵 전용 경기장 건설에 대한 입장
 날 짜 1998. 4. 10. (총 1쪽)

보 도 자 료

상암동 월드컵 전용 경기장 백지화는 불가피한 결정

일 시 : 98년 4월 10일(금)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 축구전용 경기장 건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50억 인류의 축제인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사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 아울러 많은 축구인들이 지적하는 바 처럼 시설면에서 그 준비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도 인식을 같이 한다. 서울의 국제적 위상과 많은 외국방문객의 교통 및 숙식의 편의를 고려할 때 서울에 전용경기장이 신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IMF의 관리체제하에서 하루에도 1만명씩의 실업이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천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이 문제는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그만큼의 국민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어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98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인천의 문학경기장을 국제기준에 맞는 규모로 보수하여 주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작금의 경제난과 국민적 고통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결정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정부와 서울시 당국이 이같은 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실직자 지원' 등의 비용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같은 정부 결정에 이견을 표하고 있는 축구인들에게 다소 불만족스럽더라도 누란(累卵)의 위기국면을 겪고 있는 국가경제상황을 심분 감안하여 보다 대승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줄 것을 당부한다. 끝.